

# 토지개혁을 꿈 꾸던 유형원

정찬주  
(소설가)

유형원(柳馨遠)은  
광해군 14년  
(1622) 정월에 서울  
정릉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호는 반계(潘溪).

그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훌륭한 가정이었다.  
두 살 때 부친 유 흡을  
잃고 네살 때부터  
학식이 높은 친척  
아저씨들에게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비록  
일찍 아버지를 여의기는  
했지만 워낙 이름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도 여섯 살  
때 이미 <서경>이란  
어려운 학과목을  
끝내고 아홉 살부터는  
유교 학문의 어려운  
교과인 <역경>을 비롯한  
<제자백가>라는 책도 모두  
끝마쳤다.

그리고 그는 열여덟 살 되던  
해 당시 철산지방 관리인 부사  
심 맹의 딸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했다.

서울을 떠나 전라도 부안으로  
이사를 한 것은 그의 나이 27세  
때이다. 거처를 옮긴 이듬해에  
과거시험을 보아 합격했지만  
그는 벼슬길을 단념했다.

당시 나라안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식량이 떨어져 어려운  
생활에 부딪치는 봄철.  
이 계절에 맞춰 나라에서  
얼마씩의 곡식을 백성들  
에게 나눠주고는 가을  
추수 무렵에 다시 나라  
에서 빌려준 곡식을  
거둬가는 환곡제도 역시  
아주 질서가 문란했다.  
즉 빌려준 곡식을  
미끼로 말할 수 없이  
비싼 이자를 받아내었다.

## ■ 토지제도 개혁만이 살 길

유형원은 이러한  
당시의 나라 사정에 크게  
영향을 입어 <반계수록>  
이라는 저서를 집필하여  
당시 사회의 혁신을  
부르짖었다. 그는 농촌에

겪고 있었다. 임진왜란을 겪고 그  
상처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다시  
병자호란을 맞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토지제도가 극도로  
문란해졌다. 그래서 국가에  
바치는 백성들의 세금은 자연히  
내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국가의  
재정도 텅텅 비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권세가들의 자제들은  
군대에도 나가지 않아 이것 역시  
가난한 백성, 권력을 모르고 사는  
농민들이 모두 뺏혀 나갔던  
것이다.

파문혀 있었던 관계로 농민들을  
통해 비참한 현실을 바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바로잡아  
고쳐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토지제도를 뜯어고쳐야 되겠구나.  
이것을 바로 잡아야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세금과 부역이  
고르게 되며 집집마다 평온이  
깃들 수 있을 게 아닌가?」

이와 같이 생산과 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토지와 생산자인  
농민이 올바르게 결합되지

않으면 영영 나라의 평온과 백성들의 안정된 생활은 찾아볼 수 없으리라는 견해를 가지고 그는 <반계수록>을 엮었다.

그가 부르짖게 된 이 토지제도 개혁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농촌에 묻혀 직접 체험한 농촌생활에서 얻어진 결실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벼슬자리에 추천된 일이 있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오직 부안 우반동에 머물면서 저술에만 온힘을 기울이며 지냈다.

집필한 몇가지 대표적인 저서를 간추려보면 <반계수록> <이기총론> <논학물리> <경세문답> <기행일록> <동사강모조례> 등 20여가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오직 <반계수록> 26권과 <조현제> 1권밖에 없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 대표적인 그의 저서, 반계수록

어떤 학자는 효종 3년(1652)에 집필하기 시작하여 현종11년(1670)에 완성하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그보다 훨씬 늦은 현종 원년(1660)에서 현종 4년에 끝마쳤다고도 한다.

<반계수록>은 자신의 생활 발자취를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적어 놓은 책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 동서양에 이르는 서적을 널리 인용하여 일일이 실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반계수록>은 단순한 생활감정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의 정치에 관한 논술까지 많이 수록돼 있어, 이 책의 저술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정치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의 온 정력을 기울인 끝에 만들어낸 책이 분명하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한 꿈과 비현실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실생활에 알맞고 농민들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한 백성들의 구제에 대한 대책을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농촌인 우반동에 살고 있을 때 지어진 것임을 다시 증명해주고 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손꼽히는 이 저서에 관해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사실은 내가 이 책을 쓰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이 책을 세상에 내놓으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이 책은 내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서적들을 읽다가 얻은 감명이나 느낌을 쓴 것도 있으나 대개 나의 생각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가 겸손한 뜻으로 들려주었던 얘기이다. 그는 언제나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구제해내자는 애국심에 불타 있었기 때문이다.

숙종 4년(1678)에 그의 친구

배상유가 <반계수록> 가운데에 적힌 일곱 가지의 주장을 임금에게 대신 전하여 실시하자고 건의한 바 있으나, 나라에서 채택하지를 않았다.

또한 숙종 20년(1694)에 노사효 등이 상소문을 올리면서, 결들여 <반계수록>을 일부러 한 부 베껴서 왕에게 정성껏 올렸으나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영조 17년(1741)에 양득중에 의해서 임금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영조는 홍계희에게 명을 내려 <반계수록>을 간행케 하였으니, 이때는 유휴원이 세상을 떠난 지 백년이 가까운 뒤의 일이었다.

여러 가지 모순투성이인 토지제도를 우선 이상적으로 뜯어고쳐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고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한편, 국방문제와 학문제도 역시 바로 세울 것을 주장한 개혁의지가 <반계수록>의 정신이자 이상이었다.

그는 <반계수록>에서 토지제도에 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보고자 애쓰는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백성들이 오래도록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세금도 골고루 매기지 못하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군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재관을 올바르게 할 수 없으며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며, 풍속을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나, 이러한 중대한 토지제도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치와 교육을 바로 할 임금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토지는 천하에 제일가는 근본이요,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반계수록〉에 담긴 토지제도 개혁의 내용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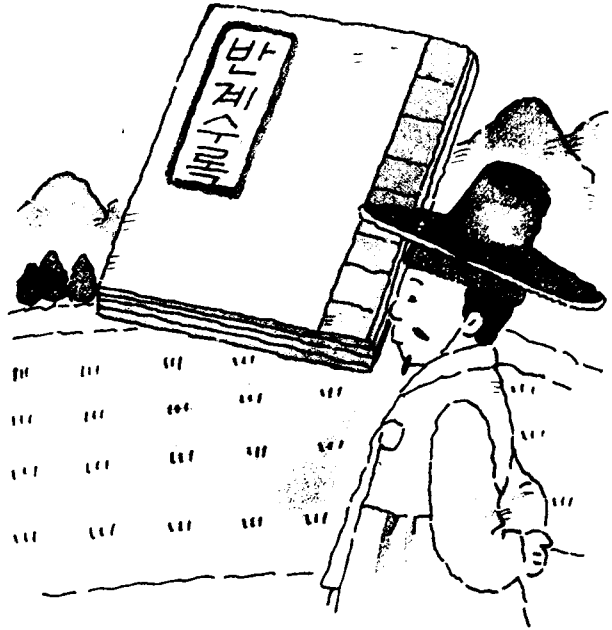
— 벼슬하는 사람이 벼슬자리에 있을 때 봉급을 받고,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 있을 때 토지로써 자신들의 생활을 꾸려가도록 한다.

관청에서 심부름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은 봉급을 넉넉하게 주어 그 부모와 자식 등 가족을 충분히 보살필 수 있게 해주고, 9품 이상에서 7품까지의 현직관리는 병역의무를 면제해 준다. —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조의 토지개혁은 나라의 땅을 뺀 나머지 토지를 균등히 배분하여 농민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었으나, 유형원은 세금을 매기되 합리적으로 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주장이었다.

즉 농민들에게 나라의 땅을 한 사람당 1경씩 주고, 그 토지로부터 세금을 받고 토지 규모를 기준으로 부역이나 병역 의무를 매기자는 것이었다.

한편, 그는 병정보다는 선비를 더 중히 여겨, 선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다. 토지를 받은 퇴직관리들에게는 부역이나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말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그의 뜻은 이 익, 정약용 등으로 이어져서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 미완성 원고를 불태우다.

부안 우반동(변산 부근)으로 이사온 지 20년이 되던 해였다. 현종14년(1673) 3월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쓰다 만 원고들을 모두 가져

오너라.」

자식들이 그의 머리맡에 원고를 가져오자 다시 입을 열었다.

「미처 완성하지 못한 원고들이다. 모두 불태워라.」

그는 눈시울을 적시며 자식들에게 미완성의 원고를 불사르게 했다.

그리고 나서 죽산의 용산리 정배산에 묻히게 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52세였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시끄러운 요즘, 유형원이 살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땅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